

지역사회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참여와 아버지 삶의 변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여 아버지에 대한 FGI 분석*

Participation in Community Fatherhood Programs and Changes in Fathers' Lives:
The FGI of Fathers Participating in the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조교수 이현아**

Dept.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Lee, hyunah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FGI를 통해 프로그램이 아버지와 그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은 4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총 5개 프로그램이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각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3-5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총 2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면접내용을 내용분석을 통해 총 16개의 개념을 추출하여 7개의 카테고리 및 2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아버지, 아버지참여,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아버지의 삶,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n more depth how community fatherhood programs affected the lives of fathers and their families through the FGI(focus group interview) after the end of the programs. Five father participation programs from four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were selected for this research. Focus groups with 3-5 individuals for each program were conducted, with a total sample size of 20 people. Using content analysis, 16 concepts were extracted and classified into seven categories and two sub-topics.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eveloped a series of suggestions for the planning of father participation programs.

Key words: father, fathers' lives, fathers' participation, fatherhood programs, Healthy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2024132).

**주저자, 교신저자: 이현아(leehyunah@knou.ac.kr), <https://orcid.org/0000-0001-7835-3322>

I. 서론

성역할인식을 논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은 공사영역 이분법에 의한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자’ 모델이다. 산업화 이후 일과 가정이 분리되면서 남성은 시장노동을 전문으로 하고 여성은 무급 돌봄 및 가사를 담당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로 특징지어져 왔다(Crompton, 2001). 여성이 시장노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맞벌이모델로 점차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성역할모델의 변화는 먼저 성역할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한 태도로 성역할인식을 측정하고 있고, 사회조사에서는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로 성역할인식을 파악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9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20)에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남녀 성역할에 대하여 72.8%가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남자는 66.2%, 여자는 79.2%로 여성의 반대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았지만, 남녀 모두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우세하였다. 또한 2019년 사회조사(통계청, 2019)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는 응답이 44.2%로 ‘일을 우선시 한다’는 응답의 42.1%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조사에서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를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는 사람이 일을 우선시 하는 사람보다 많아진 것이다. 우리사회가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과 가정을 모두 중요시하는 사회적 변화는 아버지역할과 아버지상의 변화로도 나타난다.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으로 이분화된 성역할모델에서는 아버지역할이 ‘생계부양자’로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까지 추가가 되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아버지의 육아’를 소재로 한 TV 예능프로그램들이 등장할 정도로 가정을 중시하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상이 부각되었다(이현아, 2014). 이러한 아버지 역할의 변화 속에서 이상적인 아버지상과 현실의 아버지상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지지하는 아버지이자 지원하는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이자 혼육적인 아버지,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존경받는 아버지, 그리고 능력 있는 아버지이자 가정적인 아버지와 같이 이상적인 아버지와 현실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자아상이 분리와 통합의 관계를 동시에 형성하고(김영철·양진희, 2014), 바람직한 아버지 상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역할수행의 불일치, 생계부양자와 돌봄제공자 역할수행으로 인한 긴장, 자녀에 대한 헌신과 직업적 성취욕구간의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양소남, 2013).

정책적으로 변화하는 아버지역할에 대응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건강가정기본계획), 보건복지부의 저출산정책(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지역사회 가족정책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이 실제 변화하는 아버지역할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이후, 아버지 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수사업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연도별 건강가정지원센터 공통필수사업 내용(여성가족부, 2018)은 조금씩 바뀌어, 2006년-2007년에는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아버지교육으로, 2008년-2009년에는 가족친화문화조성 영역의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으로, 2010년-2011년에는 가족교육 영역의 ‘남성대상 교육’으로 포함되어 운영되었다. 2012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영역이 크게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지원, 지역사회연계의 6개 영역으로 나뉘고, 그 중 가족돌봄나눔 영역에 ‘아버지-자녀가 함께 하는 토요일프로그램’이 포함되고, 가족교육 영역에 ‘남성대상 교육’이 포함되어 운영되었다. 이때,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연간 2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남성대상 교육’은 연간 20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는 운영시간 기준이 있었다. 2016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사업영역을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 아버지역할 지원을 위한 아버지교육과 아버지모임이 필수사업으로 지정·운영되었다. 2018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서 연간 운영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어졌으나, 가족돌봄 영역의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과 가족교육 영역의 남성대상교육인 ‘아버지교육’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이처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중이지만,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2009년부터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양적으로 성장하여,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 요구도 조사 연구, 기존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 검증 연구 등이 이루어졌고, 특히 프로그램 개발·실시·효과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주도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부재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김성은 2017).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아버지대상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전국단위로 보급되어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기반정책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효과 분석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전국 101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본 연구(이현아, 2018)가 진행되었고, 그 후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한 효과검증

연구(이현아, 2020)도 시도되었다. 실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효과가 양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처럼 양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는 프로그램의 전반적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아버지들의 삶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심층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아버지 개인과 가족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미국의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미국의 ‘책임감 있는 아버지 프로그램(Responsible Fatherhood Programs)’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 프로젝트는 아버지의 능력개발로 아버지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의 학업, 정서, 사회,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Bronte-Tinkew et al., 2007). 다수의 사회 및 심리 연구들을 통해 책임감 있는 아버지 역할 충진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와 활동이 아동의 복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Martinson & Nightingale, 2008; NCOFF, 2002),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아버지역할이 가족과 자녀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다(Bronte-Tinkew, Burkhauser & Metz, 2012). 미국 의회는 2006년 복지개혁법을 개정을 통해 5년간 책임감 있는 아버지 프로그램(Responsible Fatherhood Programs)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천만 달러를 할당했고, 가족지원국(The Office of Family Assistance)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건강한 결혼과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프로그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0개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8). 미국의 가족지원국(OFA)에서 실시한 책임감 있는 아버지 프로그램은 크게 6가지 영역에서 책임감 있는 아버지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와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책임감 있는 아버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영역으로는 ① 건강한 결혼생활과 공동양육관계 개선 및 유지, ② 육아 지식과 능력 향상, ③ 아버지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 ④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참여도 증진, ⑤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개인적 변화 촉진, ⑥ 아버지와 지역사회와의 연결 향상의 6가지가 있다.

먼저 건강한 결혼생활과 공동양육관계를 지원하는 활동에는 관계 형성 기술 교육, 결혼준비 상담 등 결혼 전 교육, 다른 공동육아 커플의 멘토링 등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는 아버지의 소통 능력 및 갈등 해결 능력 향상, 공동육아 배우자와의 갈등 감소와 신뢰 및 결혼만족도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육아 지식과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책임감 있는 자녀양육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좋은 양육 기술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의 원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는 아버지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형성하고 자녀의 요구에 공감하도록 하는가 하면, 자녀의 독립심을 기르는 효과적인 돌봄 기술을 학습시키고 자녀발달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아버지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활동으로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금융역량 개발 등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 아버지들의 80% 이상이 취업지원을 하고 50%가 1년 내에 구직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는 부모자녀 소통 교육과 개별지도 상담이 있으며, 해당 활동을 통하여 아버지들이 부성애를 기르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와 자녀에 대한 감정적인 관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버지 개인의 변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예를 들면, 약물중독이나 범죄경력이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개인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좋은 아버지역할모델의 경험이 없는 아버지들이 아버지역할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버지의 자존감 향상,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지역사회와의 연결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육이나 자녀양육서비스 신청을 도와주는 개별적 지원, 지역사회 종사자 대상 아버지이해 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버지의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미국 정부 차원의 아버지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책임감 있는 아버지 프로그램 제공이 확산되면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NRFC(National Responsible Fatherhood Clearinghouse)는 Bronte-Tinkew et al.(2007)로 하여금 ‘아버지 프로그램 성공의 실천전략 요소: 아버지프로그램에 대한 증거 기반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Bronte-Tinkew et al.(2012)는 다양한 과학 저널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버지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정보를 포함하는 80개의 평가 보고서와 연구를 추출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아버지 프로그램의 15가지 성공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Fagan & Kaufman(2015)도 미국에서 책임감 있는 아버지 프로그램 확산 이후 아버지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버지 프로그램 참여의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참여와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들은 아버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틀로써 애착이론, 가족시스템 이론, 위기-탄력성 관점을 제안하고, 아버지 프로그램의 효과와 성과 측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Holmes et al.(2010)는 초기 연구자들이 주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고려없이 어머니의 부모됨을 다루었다(Stoltz et al., 2005)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은 남성인 아버지의 고유한 니즈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McBride & McBride, 1993)는 관점에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총 93개 연구를 추출하여 기준에 맞는 16개 연구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아버지참여수준, 아버지태도, 아버지-자녀관계의 질, 아버지의 안행, 공동양육, 자녀행동 6개 차원에서 아버지교육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정부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 년 동안 책임감 있는 아버지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프로그램 관련 동향 분석이나 메타분석(Bronte-Tinkew et al., 2012; Fagan & Kaufman 2015; Holmes et al., 2010)을 통해 아버지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2. 우리나라의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크게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김진희·정희연, 2005; 송혜림·이정희, 2014; 손순복, 2016; 홍길희·황정해, 2006),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김진희, 1999; 송혜림 외, 2010; 박필레·김성길, 2014; 홍길희·황정해, 2007),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강기정·이윤정, 2010; 강혜원·박지연, 2011; 권기남, 2012; 권혜진, 2013; 이지연·이소현, 2020; 윤성민, 2019; 황혜신·윤명자, 2015)으로 나뉜다. 이 중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강기정과 이윤정(2010)은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한 12명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상이 정립되고 자녀와의 대화를 비롯해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자녀와의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수준이 높게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강혜원과 박지연(2011)은 장애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프로그램 시행 전에 비해 프로그램 시행 후 아버지의 유아와의 상호작용 행동이 유의하

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남(2012)의 연구에서 서울지역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자녀를 둔 아버지 총 71명을 연구대상으로 e-learning 기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의 양육활동 참여수준이 더 높아지고, 아버지-자녀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양육자신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혜진(2013)은 아버지교육에 여러 번 참여한 경험이 있고, 교육 참여에 적극적이고,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3명을 대상으로 아버지교육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들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교육에 의미를 발견하고 수동적인 참여에서 능동적인 참여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황혜신과 윤명자(2015)는 서울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유아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이 향상되고, 아버지-자녀의 상호작용 중 정서적 애정표현과 활동공유 애정표현이 증가하고 비일관적 행동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윤성민(2019)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웹기반 심리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이지연과 이소현(2020)의 연구에서는 SNS기반 아버지 역할 증진 프로그램을 참여한 아버지가 프로그램 참여 이후, 양육참여도가 증가하였으며, 애정표현하기, 의사소통 촉진하기, 놀이 제안하기 등의 아버지-유아 상호작용 행동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참여는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관계 형성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아버지역할 자신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도하는 지역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중이지만,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이현아·박철·김선미, 2017; 이현아, 2018; 이현아, 2020)가 2017년 이후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이현아 외(2017)는 지역센터 아버지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자녀와의 관계 개선', '부부관계 개선', '아버지효능감 향상'의 세가지 차원에서 아버지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버지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느끼는 효과 중 가장 큰 것은 자녀와의 관계 개선으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녀와 소통이 증가하고 더욱 친밀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프로그램 참여는 부인과의 관계 개선에도 효과가 드러났으며, 특히 아버지들은 아버지프로그램참여를 계기로 아버

지역할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됨을 느끼고, 아버지 스스로의 효능감이 향상되며, 아버지들끼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위안을 받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현아(2018)의 연구에서는 전국 101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성과를 논의하였다. 그 이후 이현아(2020)의 연구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제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경험과 요구에 집중하고, 이들의 만족도와 효과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실제 지역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아버지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심층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하였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아버지 개인과 가족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하여, 아버지프로그램의 효과를 조사하여, 향후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기획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GI의 장점은(김성재 외 역, 2007) 특정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게 해주고 참여자들의 의견과 경험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또한 FGI는 상호작용이 극대화되고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의 상충이나 지지 혹은 강조가 이루어져 하나의 이슈에 대한 통합적 견해를 얻기에 유리하다(김미옥, 2007)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은 4개 센터의 총 5개 프로그램이고,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3명~5명씩 그룹으로 FGI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의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고, FGI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의 현황

센터	프로그램 성격(내용)	진행 시기	진행 요일	진행 방법	참여 형태	참여 장소	참여 시간	참여 인원	실시 회기	참여자
A	자녀와 놀이/체험 (신체, 미술, 목공, 요리 놀이 등)	2019.3.23. -4.13	(토) 오전	문화	가족	센터	1시간 30분	15명	4회기	10명
	아버지교육 (심리, 소통, 긍정, 질문 테라피를 통한 좋은 아버지 되기)	2019.4.24. -5.22	(수, 금) 저녁	교육	개인	센터	2시간	18명	7회기	18명
B	아버지교육 & 자녀와 놀이/체험 (소통 훈련, 대화법, 신체놀이, 요리체험)	2019.4.20. -5.18	(토) 오전	교육 문화	개인 가족	센터	1시간 30분 + 1시간	11명	6회기 (3+3)	11명
C	아버지교육 & 자녀와 놀이/체험 (아버지역할지원, 실내스키, 전통음식 만들기 등)	2019.6.14. -6.22	(금) 저녁 (토) 오전	교육 문화	개인 가족	외부	2시간	10명	3회기	10명
D	자녀와 놀이/체험 (사물 놀이, 동화 낭독, 드론 교실, 정크 아트, 가족여행 등)	2019.4.6. -7.6	(토) 오전	문화	가족	센터 및 외부	2시간	13명	8회기	13명

<표 2> FGI 참여자의 특성

센터	FGI 일시	참여자	참여자 특성
A	2019년 4월 13일	4명	Aa-1(40세) 여7세, 여3세 서비스직, 전업주부 Aa-2(41세) 여8세, 남5세 자영업, 전업주부 Aa-3(39세) 여8세, 여3세 판매직, 맞벌이 Aa-4(39세) 남6세 사무직, 맞벌이
	2019년 5월 22일	4명	Ab-1(42세) 남12세, 남10세, 기술직, 전업주부 Ab-2(39세) 여6세, 사무직, 맞벌이 Ab-3(41세) 여7세, 여6세, 기술직, 전업주부 Ac-4(41세) 여10세, 여8세, 자영업 전업주부
B	2019년 5월 18일	5명	B-1(39세) 남5세, 여2세, 공무원, 전업주부 B-2(37세) 남4세, 남1세, 사무직, 전업주부 B-3(40세) 남5세, 여11세, 연구직, 전업주부 B-4(36세) 남2세, 여1세, 사무직, 전업주부 B-5(37세) 여2세, 사무직, 전업주부
C	2019년 6월 22일	3명	C-1(46세) 여17세, 남13세, 남11세, 서비스직, 전업주부 C-2(43세) 여17세, 여10세, 자영업, 맞벌이 C-3(41세) 남9세, 여7세, 남3세, 기술직, 맞벌이
D	2019년 7월 6일	4명	D-1(44세) 여8세, 여4세, 기술직, 전업주부 D-2(45세) 여20세, 여8세, 서비스직, 전업주부 D-3(40세) 여11세, 남8세, 사무직, 맞벌이 D-4(43세) 남11세, 여8세, 사무직, 전업주부

FGI를 실시하기 위해 연구에 사용하는 질문 등 모든 연구절차에 대해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 심의를 받았으며(승인번호: 1040621-201811-FHR-051-02), 이에 따라 참여자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고, 집단면접내용을 녹취하였다. 면접 시간은 그룹별로 1시간 30분~2시간 30분 소요되었는데, 녹취한 면접내용은 전사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에 따라 본문으로부터 의미단위를 추출하고 그로부터 총 16개의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7개로 범주화하였다. 7개 범주는 크게 참여 계기와 참여 효과의 두가지 하위주제로 분류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분석적 기술(analytic description)의 형태로 제시하였다(〈표 3〉).

〈표 3〉 FGI 내용 분석 결과의 개념과 범주

개념	범주	하위주제	
부인 권유	부인의 권유	참여계기	
부인의 권유와 남편의 관심			
자녀 학교의 권유	지역사회 권유		
센터의 권유			
홍보물 인지			
주말 활동 고민	아버지 역할 고민		
좋은 아버지 되기			
자녀와 시간 보내기	자녀와의 관계 개선		참여효과
자녀와 노는 방법 경험			
자녀와 공감대 형성			
부부 소통 및 공감 노력			
부부 만족감 증대	부인과의 관계 개선		
아버지 역할 변화			
아버지 역할 성찰	아버지 효능감 향상		
아버지 공감대 형성			
아버지자조 모임 욕구 형성	아버지 연대 형성		

IV. 연구결과

1.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

프로그램 참여 계기는 크게 부인권유, 지역사회 권유, 좋은 아빠 되기의 범주로 분류된다. 부인권유는 온전한 부인권유형과 아버지관심이 있는 부인권유형으로 나뉘고, 지역사회권유는 자녀학교에서 권유, 지역센터에서 권유, 홍보물 인식으로 나뉜다. 아버지 스스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주말 활동 탐색형과 아버지 역할 고민형으로 나뉜다.

1) 부인의 권유

부인권유로 아버지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대부분 부인이 대신 신청한 경우로 ‘집사람이’ 또는 ‘와이프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같은 부인 권유라 하더라도 아버지 본인의 관심이 함께 한 경우는 평소 아버지도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대신 신청을 하거나 부인이 남편의 일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주말 일정을 보고 프로그램 신청을 대신해주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현아 외(2017)의 연구와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부인이 권유해서 참여한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관심이 전제된 상태에서 부인이 대신 신청하고 권유한 경우가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 참여에 대한 관심이 해가 다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프로그램 참여 계기: 부인의 권유

본문 그대로의 코딩	개념	범주
배우자, 집사람이 이것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서(B-1) 저희 와이프가 지인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D-1)	부인 권유	부인의 권유
저랑 와이프랑은 일정을 공유하는데 제가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 일정을 보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B-3)		
와이프가 보고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옛날처럼 되는데로 기르는게 아니라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와이프가 그런 생각이 많고 그런 공감대가 저도 있고 그래가지고...(B-4)	부인 권유와 남편 관심	
‘아! 이런 게 있더라’고 아내한테 전달해 주니 아내가 신청을 했어요. 저도 관심이 있고 좀 어떻게 해서 보냈는데 아내가 신청을 했고...(B-5)		
예전에 살던 구에서 아버지프로그램 참여를 했었는데, 이사 오면서 아내가 예전 살던 구에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참여하게 되었고요.(D-2)		

2) 지역사회 권유

지역사회 권유로 참여한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에서 권유 연락을 받거나, 지역센터에서 권유 연락을 받거나, 유인물이나 플랭카드와 같은 홍보물을 보고 신청한 경우로 나뉜다.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그냥 주저없이 참여’ 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학교에서 권유는 다른 어떤 경로보다도 강력한 참여 계기가 된다. 지역의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권유를 받은 아버지들은 이전에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담당자들이 대상자를 모집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기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기본적 관심여부는 확인이 된 바, 이들을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묻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플랭카드를 보고 신청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버스티는 출근길에 플랭카드를 보았다거나 우연히 운전하다가 플랭카드를 보았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 홍보물의 효과를 알 수 있다.

〈표 5〉 프로그램 참여 계기: 지역사회회의 권유

본문 그대로의 코딩	개념	범주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그냥 주저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C-1)	자녀 학교의 권유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학교 복지팀 연락으로 해서 참여하게 됐고...(C-2)		
저도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게 첫째 학교에서, 11살 학교에서 어떤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동의를 했거나 연락처를 썼었던 것 같아요.(D-4)	센터의 권유	
사실 저희 막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Aa-3)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다가정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년 전에 딸 1학년 때 학교에서 하는 다가정문화에 참여했을 적에 동의하고 나서...(D-3)	지역 사회 권유	
우연히 운전하다가 플랜카드를 봐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Aa-1)		
지나가다가 써 있기에 “저게 뭐지?” 그래서... 우연히 쉬는 날짜랑 맞아서 운 좋게 이런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Aa-2)		
저는 버스 타는데 출근하는데 보니까 삼거리에 플랜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아! 이것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와이프가 신청해 놓았더라고요.(Aa-4)	홍보물 인지	
저도 00초등학교 그 유인물을 보고 처음에는 뭔지 모르니까 와이프랑 상의하고, 얘기 해 가지고(C-3)		

3) 좋은 아버지되기

앞서 부인의 권유와 지역사회회의 권유가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좋은 아버지되기’는 아버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근원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 아버지들 중 상당수는 주말 가족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아버지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말에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 활동을 모색하다가 센터에서 진행되는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주말에 아이들 케어를 해야하는 상황’, ‘주말에는 무언가 액티비티를 하려고 하는 상황’, ‘주말마다 애들하고 뭐를 해야될지 고민’이라는 표현 속에서 주말마다 가족과 그리고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계획을 고민하는 아버지들의 고충을 알 수 있다. 주말마다 가족 활동을 계획해야하는 아버지에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프로그램은 훌륭한 해결방안이 된다. 반면, 아버지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조금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아버지교육을 찾아왔는데, 가족 내에서 아버지역할을 고민하는 아버지들에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교육은 가정에서 아버지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들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다. 집에서 아이가 엄마만 찾아서 아버지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 육아나 부부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을 찾아온 것이다. ‘이런 쪽에 많이 목말랐어요’, ‘딸아이의 행복 그런 것

도 있지만 나도 무언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주말 가족활동을 고민하고 가정 내에서 아버지 역할을 고민하는 아버지들이 아버지교육과 아버지-자녀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찾아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프로그램 참여 계기: 좋은 아버지 되기

본문 그대로의 코딩	개념	범주
주말에는 ‘전담’이에요. 저는 토요일에는 아침에 그냥 데리고 나가요. 와이프 쉬라고 한 4시나 5시정도에 집에 와서 그렇게 하는데...(Aa-1)	주말 활동 찾기	
주말마다 고민이거든요. 애들하고 뭐를 해야될지 고민이고, 어디를 가야되나...그나마 4주 동안은 여기서 주말 만나절이라도 보내니까 편했는데...(Aa-3)		
주중에는 잠만 자고 퇴근하고 그런식이고...그래서 주말에 최대한 놀아주려고 노력하는데...우연히 ‘아빠와 함께’라는 단어가 그제 있어서...(Aa-4)		
주말에는 항상 제가 아이들 케어를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주로 바깥으로 나가는 편이에요...이미 저희는 주말은 8월10까지 지금 다 차있는 상황이에요.(B-3)		
토요일은 그냥 아내하고 저하고 토요일 어디로 갈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여기 있는 날은 이제 그냥 ‘아빠 날’이라고 생각을 하니깐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D-2)	좋은 아버지 되기	
조금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고요.(Ab-1)		
이것 하기 전에 4주짜리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 참여하게 됐고, 이런 쪽에 많이 목말랐어요... 어쨌든 변화는 있을 거고, 우리 아이,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과 조금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Ab-2)		
뭐 하게 되면 애가 자꾸 ‘엄마’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자꾸 찾게 되고 목말라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Ab-2)	아버지 역할 고민	
이런 아이들 육아하는 거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있었는데... 육아라든지 와이프 하고 관계를 조금 더 알고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고민하던 차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해 줘서 참여하게 되었는데...(Ab-3)		
집 주변 지인이 추천을 해 주셔서가지고 딱 보자마자 팸플릿 보자마자 아빠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아! 내가 또 들으면 그 당시에 애들하고 나하고 느꼈던 그런 감정을 다시 또 느낄 수 있겠구나...(Ab-4)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딸아이의 행복 그런 것도 있지만 나도 무언가...(D-4)		
저도 어떻게 놀아줄지 엄청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책을 봐도 별 내용이 없는데, 체험학교도 그렇고,		

본문 그대로의 코딩	개념	범주
부부학교도 예전에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 아빠학교도 아빠가 어떻게 해야될 지 이렇게 조금씩 배우면서 좋은 것 같아요.(D-2)		

2.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변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변화는 자녀와의 관계 개선, 부인과의 관계 개선, 아버지 효능감 향상, 아버지 연대감 형성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개선은 자녀와 시간보내기와 자녀와 노는 방법 경험, 자녀와 공감대 형성을 포함한다. 부인과의 관계 개선은 소통 및 공감 노력, 배우자 만족도 증대로 나타났다. 세 번째 아버지 효능감 향상은 아버지역할 변화와 위안의 측면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연대감 형성은 아버지 공감대 형성과 아버지 자조모임 육구 형성으로 나타났다.

1)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 효과 중 자녀와의 관계 개선은 주로 토요일에 진행된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났다. ‘딸아이랑 뽀뽀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 ‘여기 있는 날은 이제 그냥 ‘아빠날’이라고 하면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자녀와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다양한 놀이로 체험하면서 자녀와 어떻게 놀아주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와 무얼 할지 고민이 덜어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이와 노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점이 좋았다고 하였다. ‘그동안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동안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놀이 아이들을 정해주니까 그 아이들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집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았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이 자녀와 함께 노는 경험을 통해 자녀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놀이방법 습득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이를 함께 하는 경험은 자녀와의 유대감이 형성으로 연결되었다. ‘아이와 저만의 어떤 주제가 생겼다는 것...이것은 아이와 저와의 대화잖아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대화 공간이 생겼다고 느끼는 아버지의 사례에서 아버지프로그램 참여가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평소 무뚝뚝했었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변화한 아버지’, 또 ‘아이와 많이 마주치고 같이 하면서 유대가 깊어진 것 같다고 한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서 아버지프로그램 참여가 자녀와 유대감 형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자녀와의 관계 개선

본문 그대로의 코딩	개념	범주
<p>애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놀아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C-3)</p> <p>애들하고 같이 자는 것 자체가 행복했고,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뛰어내리고 난리였어요.(C-1)</p> <p>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던 간에 일단 어떤 시간을 낸다는 것, 딸아이랑 뽀뽀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 또 딸아이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D-1)</p> <p>여기 있는 날은 이제 그냥 ‘아빠 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D-2)</p> <p>지금은 아빠한테 뭘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도 아이들랑 같이 뽀뽀 하려고 시간을 빼는 부분들이 생기니까.(D-3)</p> <p>만약에 내가 혹시 시간이 나면 딸아이랑 뽀뽀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고민이 좀...(D-1)</p> <p>하여튼 다양한 경험을 하고, 특히 이제 여기 아빠학교를 통해서 아빠가 애하고 노는 방법에 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D-2)</p> <p>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빵이 너무 질겨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저는 그래도 그냥 좋았어요. 집에서 도무지 그렇게 해 줄 자신이 없어요.(B-2)</p> <p>같이 있으면 할 말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시간 보낼 텐데, 아이들을 정해 주니까 그 아이들에 맞추어서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아이들을 집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Aa-4)</p> <p>이번에 목공하면서 못 같은 것도 망치로 해 보고 하니 이제 그것을 나뭇가지 같은 것을 깎아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Aa-4)</p> <p>아이와 저만의 어떤 주제가 생겼다는 것. 이번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부터 아이가 2G폰이 있거든요. 문자로 ‘아빠 이 앨범 안에다 뭐하면 좋을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것을 원래 엄마가 했던 것이지요. 제가 그 틈을 비집고 갈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 어제도 금요일이었으니까 자고 싶은대로 자라라고 했더니 10시에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자?” 그랬더니 “내일 아빠랑 요리 만들어야지., 뭘 만들까?”... 이것은 아이와 저와의 대화잖아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뽀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랑 저만이 얘기할 수 있는.(Aa-3)</p> <p>애들한테도 평상시 힘들어서 무뚝뚝했었는데 이것을 하자마자 바로 변화가 되더라고요.(Ab-4)</p> <p>그러니까 애가 제가 봐도 좀 유대가 깊어진 것 같기는 해요. 많이 마주치고 같이 하니까.(B-1)</p> <p>처음에 솔직히 저는 그냥 애만 만족하면 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다 보니까 나도 만족하고 애도 만족하고 서로 배워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D-1)</p>	<p>자녀와 시간 보내기</p> <p>자녀와 노는 방법 경험</p> <p>자녀와의 유대감 형성</p>	<p>자녀와의 관계 개선</p>

2) 부인과의 관계 개선

자녀와의 관계 뿐 아니라 부인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 적용하는 노력을 통해서 부인과 관계가 좋아지고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회의’나 ‘대화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화방법을 이해하고 감정표현카드를 이용해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부부간 소통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 부부관계 개선 측면에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프로그램은 아버지교육과 자녀와 놀이체험을 병행했던 B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대화법이나 소통훈련이 교육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나 전달법’이나 ‘공감’과 같은 대화방법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직접 말은 부끄러워서 못하고 카톡으로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주는 등 교육내용을 실제 부부사이에 적용시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였다. 대화법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소통에서 중요하다라는 것도 느끼고 자신과 배우자,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아버지들도 있었다. ‘일단은 제가 감정에 서툴구나’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도 잘 모르면서 아이나 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형식적인 대화법을 통한 공감이 아니라 감정카드를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해한 바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연습이 아버지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버지프로그램 참여는 부부만족감 증대의 효과도 보였다. 토요일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의 경우, ‘아빠들이 전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면 엄마들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육아를 할 때 아빠를 쉬게 해주고, 아빠한테 자유시간 줄때도 있고, 오히려 서로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하면서 부부간 역할분담으로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였다. 평일저녁 아버지교육에 참여한 아버지의 경우, 기존에도 여러차례 아버지학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부인이 ‘이 사람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면서 ‘부인에게 대우받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개선이 되었고, ‘와이프하고 사이가 좋아 있으니 행복해요’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부부관계 만족도가 증대한 것이다.

〈표 8〉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부인과의 관계 개선

본문 그대로의 코딩	개념	범주
가족회의. 이런 가족회의라는 어떻게 보면 도구지요. 칭찬하고 서로 얘기 한 다음에 약속을 정하고 지키면 나중에 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딱 제시해 주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B-4)	소통 및 공감 노력	부인과 관계 개선
소통에 대해서 많이 감정표현카드 이런 것도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본문 그대로의 코딩	개념	범주
금방금방 써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B-4) 저는 강의 내용 중에 대화법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나 전달법’이나 이런 대화 방법들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공감을 먼저 해 주라고 그래서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카톡으로 많이. 말은 부끄러워 못하고.(B-1) 수용-비수용 적어보기. 저는 다 비수용을 받았지만. 저는 앞으로 고쳐야 되고, 와이프는 바로 고쳐 주더라고요. 고쳐주기 쉬워서.(B-3) 일단은 제가 감정에 서툴구나 이것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그래서 공감, 내 감정도 잘 몰랐는데 나도 좀 낮설게 느껴지는데 다른 감정이나 아이나 아내의 감정을 공감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하지요. “아! 힘들었겠구나.”, “아! 아팠겠다.”, 어땠겠다. 하지만 이게 진정성 있게 그동안 못 했구나 라는 게 이번에 참가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직접 내 감정을 해 보니까 아! 그게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B-5)		
아빠들이 전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면 엄마들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육아를 할 때 아빠를 쉬게 해주고, 아빠한테 자유시간 줄때도 있고, 오히려 서로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막상 하다보며니까 그러면 엄마가 편해지니까 하지 못했던 집안일을 오히려 할 때도 있고요. 이번에는 좀 쉬어 그래가지고 어디 보내면 나중에 와서는 나를 또 보내 주고 서로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B-3) 아내가 많이 느꼈어요. ‘이 사람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집사람이 먼저 그래도 교육받았다고 평상시 보다는 많이 참네. 많이 바뀌었네. 그리고 이런 것을 또 띄워줘요....그러니까 나는 지금 살면서 결혼생활 하면서 와이프한테 가장으로서 대우를 이렇게까지.....그런데 와이프하고 사이가 좋아 있으니 행복해요. 애들이 말 안들어도.(Ab-4)		부부 만족감 증대

3) 아버지 효능감 향상

아버지 효능감 향상은 아버지역할 변화와 아버지역할 성찰의 측면으로 나타났다. 우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실제 자녀양육에 아버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아버지 역할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에 대한 가족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에서는 아버지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위안을 받는 측면이 있었다. 당장 구체적인 아버지역할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 효능감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스스로 뿌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평일 저녁에 진행되었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은 7회기에 걸쳐

다회기 동안 진행되었는데, 퇴근 후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율이 매우 높았다. 퇴근시간 이후 야근이나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피곤하고 지쳐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버지들에게 뿌듯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아버지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을 뿐 아니라 부인과 자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아버지로써 자신감이 더욱 커지고, 이것이 아버지 효능감 형성의 계기로 연결되는 것이다.

〈표 9〉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아버지 효능감 향상

본문 그대로의 코딩	개념	범주
<p>고모만 찾다가 이제 이 교육을 하러 온다고 그러면 아빠랑 테이트 간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빠랑 놀러가자, 어디가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둘이 밥을 먹으러 간다는가 그런 부분들을 즐겨요.(D-3)</p> <p>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시 자더라도 아침에는. 운동시간을 바꿨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 와서 아침에 집사람 혼자서만 준비하던 것을 제가 애들 케어하고, 집사람 준비하고... 그런데 우리 큰 애, 둘째 애도 엄마한테 와서 “아빠가 바뀌었어.”, “어! 너희 아빠 교육 하고 있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너무 행복하대요, 애들이.(Ab-4)</p> <p>저한테 물어보는데 참여하니가 좋다고 그러니까 나는 좋다고, 배운게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가 저 스스로도 육아에 대한 자세가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첫째아이때는 육아를 거의 안했거든요.(B-1)</p> <p>반성했잖아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도 “야! 이제는 ‘라떼대디’가 이제는 다 필수가 된 것 같다”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분위기가 이런 아빠가 안될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느꼈어요.(B-1)</p>	아버지 역할 변화	아버지 효능감 향상
<p>우리 애들이 “아빠, 거기는 왜 또 가? 아빠는 충분히 좋은 아빠야 그렇게 안가도 돼.”, “그거는 누구 아빠가 가야 되고, 누구 아빠가 가야 되는 거야. 아빠는 안 가도 돼.” ...그런데 들으면서 느껴지는 그 나의 부족함. 그리고 자아발전, 자기성찰, 이런 것.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이런 것. 그런 것을 들으려고 오는데.(Ab-1)</p> <p>여기 와서 이 시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 자신한테는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바뀌어야지 집사람도 그것을 보고 애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정신이 일단 맑아지지 않을까?...내가 맑아지면 아무래도 심적으로 편하다 보면 말이라도 한마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애 혹은 집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Ab-2)</p> <p>무언가 갑자기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조금 조금씩 배웠던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전시킬 수</p>	아버지 역할 성찰	

본문 그대로의 코딩	개념	범주
있는 그런 기회, 내지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된 것 같아서... 관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생기고...(Ab-3)		

4) 아버지들과의 연대감 형성

마지막으로 아버지프로그램에 참여는 아버지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들과의 연대감 형성은 아버지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아버지자조모임 욕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까지 스스로 아버지역할의 고충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아버지 연대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세대 간에 동년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공감대 형성이 된 거지요.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요. 아! 이렇게구나.’ 하면서 아버지들간의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또 아버지들끼리 ‘엄마랑 애랑은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버지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들이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아버지들과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힐링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버지로써 공감대를 느껴 본 아버지들은 더 나아가 아버지 자조모임 형성에 대한 욕구까지 표출하였다. ‘엄마들끼리의 모임은 있는데 왜 아빠들은 안모이는지’ 의아해하고, ‘와이프한테 제일 부러웠던 게 언니, 동생하면서 서로 챙겨주고.’라고 하면서 엄마들끼리의 모임을 부러워하기도 하며, 아빠들의 고충을 함께 나눌 수 아버지모임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드러냈다. 실제 아버지자조모임의 경험이 있는 아버지(B-3)는 단발성으로 프로그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아빠들끼리 교류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표 10〉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아버지들과의 연대 형성

본문 그대로의 코딩	개념	범주
<p>그런 게 세대 간에 동년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공감대 형성이 된 거지요.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요. ‘아! 이렇게구나.’(Ab-1)</p> <p>솔직히 저도 제 나름 힐링을 많이 했거든요. 7주동안 복잡은 하지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형님한테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엄마랑 애랑은 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일주일에 한번 만나면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요.(Ab-2)</p> <p>여기에서 느낀 것은 더 와 닿는 게 나는, 본인 얘기가...나는 좋은 스승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이렇게 아빠들하고도 이런 모듬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게 본인들 얘기를 본인들 자식들...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이렇게 해 갖고 우리 과정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구나.’(Ab-4)</p>	아버지 공감대 형성	아버지들과의 연대감 형성

본문 그대로의 코딩	개념	범주
<p>아빠들이 모여가지고 아빠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나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를 위해서 육아를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나에게 대해서 내가 우리가족들 사이에서 사는 게 이렇구나, 내 마음이 이랬구나...(B-1)</p> <p>중간중간에 물어볼 때 아버님들 고민하고 있는 게 다 비슷하니까 공감도 많이 되요. 특히 자녀들이 때 쓰는 거랑,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그때 느끼는 '아! 왜 그러지.'(B-4)</p>		
<p>엄마들끼리 모임은 있는데 “왜 아빠들은 안모이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 아빠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하고, 아빠들도 모여서 같이.(Aa-1)</p> <p>엄마들도 힘들겠지만 아빠들도 고충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따지고 보면 아빠들은 정말...(Aa-4)</p> <p>와이프한테 제일 부러웠던 게 일종의 소모임 같은게 있어서 45명인데, 언니, 동생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그런 자리가 있어서 사실은 되게 부러웠어요.(Ab-3)</p> <p>엄마는 주변에 또래 엄마들끼리 모임도 많고, 정보교환도 자주하는데, 아빠는 사실 그 기회가 없고, 그런 엄마들이 하는 모임에 걸다리로 아빠들이 들어간 다든지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전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육아를 나누는 이런 기회가 사실은 없지요. 하면 아빠들도 잘 할 수 있고요.(B-3)</p> <p>단발성으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끝나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좀 아빠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사실 조그만 어떤 씨드만 주변 그 다음부터는 아빠들끼리만 조금 친해지면 금방 되거든요.(B-3)</p>	아버지 자조 모임 교육 형성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아버지프로그램 참여 계기와 효과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기획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은 4개 센터의 총 5개 프로그램으로 아버지참여 프로그램별 3명~5명씩 그룹으로 총 2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진행하였고, 내용분석을 통해 총 16개의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하위주제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크게 부인권유, 지역사회 권유, 좋은 아빠 되기의 범주로 나뉘었는데, 이현아 외(2017)의 연구와 비교할 때 부인권유의 형태에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이현아 외(2017)의 연구에서는 참여자들 대부분 부인

이 먼저 아버지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지하고 남편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였으며, 신청까지 부인이 직접해 줄 정도로 아버지참여에 있어 부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부인의 권유를 ‘의무감’이나 ‘희생’, ‘반강제’로 인식하고, 주말 아버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부인에게 ‘허락받은 외출’이라고 표현하는 아버지들까지 있을 정도로 부인의 문지기역할이 강력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보다 3년 앞선 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3년 사이 아버지참여를 둘러싼 남편과 부인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온전히 부인의 권유만으로 반강제적으로 의무감에 아버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버지 보다는 부인이 권유한 경우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기본적인 관심이 전제된 상태에서 참여하는 형태가 더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진행되는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홍보 플랭카드나 유인물을 보고 부부가 상의하여 프로그램 신청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았고, 심지어는 부부가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남편의 주말 스케줄에 따라 부인이 대신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평일 저녁에 진행한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아버지 스스로 또는 주변에 이는 아버지의 소개로 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프로그램의 참여 계기와 경로를 보면, 3년 사이 아버지역할과 태도에 변화 경향이 읽힌다. 구체적인 참여 동기는 주말활동 고민과 아버지역할 고민의 2가지 형태로 나뉘었다. 좋은 아버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말 가족활동을 고민하고 가정내에서 아버지 역할을 고민하는 아버지들이 아버지-자녀 놀이체험 프로그램과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형태이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 주말 가족활동 계획을 짜는 것은 아버지 몫으로 간주되어, 주말에 자녀와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주말을 책임지는 것이 아버지의 주요 역할이 되었다. 지역사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녀와 함께 하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주말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항이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주중 출퇴근길에 아버지프로그램 홍보 플랭카드가 눈에 들어오고, 이것을 부인과 상의해서 주말의 가족일정을 확정해야 아버지 책임을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중에 바쁜 아버지들에게 주말에 자녀와 함께 놀고 자녀를 돌보는 일은 아버지역할의 하나로 자리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돌봄에 참여하면서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아버지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깊어지고, 아버지역할에 대한 고민을 안고서 아버지교육프로그램에 까지 등록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과 함께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아버지들과 공감대를 나누면서 아버지들끼리의 연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변화하는 아버지 모습으로 진단된다.

아버지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느끼는 변화는 이현아 외(2017)의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관계 개선, 부부관계 개선, 아버지효능감 향상의 3가지 측면 뿐 아니라 아버지 연대감 형성

의 효과가 추가되어 4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 개선은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자녀와 노는 방법을 경험하고, 자녀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3가지 측면으로 분석되었다. 부인과의 관계개선은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노력하고 부부만족도가 향상되는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아버지 효능감 향상은 아버지역할 변화와 아버지역할 성찰과 이에 대한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아버지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측면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아버지들끼리 서로 위안하고 공감대를 나누고, 더 나아가 아버지자조모임에 대한 욕구를 표출함으로써 아버지 연대감을 형성하는 측면의 효과까지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 개선 효과는 주로 토요일에 진행된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났고,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과 아버지효능감 향상은 아버지교육형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서 주로 언급되었다. 특히 7회기에 걸친 아버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아버지 효능감 향상 효과를 강하게 느끼고, 함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들과 공감대를 나누면서 자조모임과 같은 아버지연대를 형성하는 단계로까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교육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대부분 기존에 같은 센터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토요일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한 아버지는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스스로 아버지역할 변화를 느끼고 이에 대한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아버지역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아버지 모습에 부인과 자녀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들끼리 서로 고민을 나누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버지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아버지연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의 참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개선, 부인과 관계 개선 뿐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효능감 향상이라는 변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들과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 아버지연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즉, 아버지 개인의 역할 변화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관계와 참여까지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야기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프로그램의 설계시 고려할 점이 몇가지 제기된다. 우선, 아버지들의 프로그램 참여 계기 분석을 통해 아버지들의 잠재적인 동기와 구체적 참여 경로를 확인한 바, 이를 고려하여 아버지프로그램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있어 주말놀이 계획을 고민하는 아버지들에게는 1차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아버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버지들의 역할정체성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으로는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아버지교육이나

자조모임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단회기나 몇차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버지들끼리 본인의 이야기로 고충을 나누며 서로 위안할 수 있는 아버지 자조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모임을 이끄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아버지들끼리 지역사회내 공동체로 연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아버지프로그램 참여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에 설정한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목표가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를 통해서도 효과로 인식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이 되었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프로그램의 목표가 실제 참여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입증되었다는 의미로, 그만큼 프로그램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센터 수요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로 프로그램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실제 참여자 평가를 통해 입증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FGI 조사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로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센터의 프로그램만 살펴본 것으로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효과는 프로그램 주제나 형태 뿐 아니라 참여기간이나 참여자수, 프로그램 지도 강사, 지역센터 담당자,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효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강기정 · 이윤정(2010). 다문화가족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89-101.
- 2) 강혜원 · 박지연(2011).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2), 1-25.
- 3) 권기남(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능력 향상을 위한 e-Learning 기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아동교육, 21(1), 5-20.
- 4) 권혜진(2013). 아버지교육 참여자 경험을 통해 살펴본 아버지교육의 의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461-488.
- 5) 김미옥(2007).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 엄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4), 163-189.
- 6) 김성은(2017).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4), 75-100.
- 7) 김성재 · 오상은 · 은영 · 손행미 · 이명선 역(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서울:군자출판사.
- 8) 김영철 · 양진희. (2014). '슈퍼맨: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상(像). 아시아교육연구, 15(4),

- 81-107.
- 9) 김정희(1999). 유아를 둔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251-292.
 - 10) 김진희 · 정희연(2005). 아버지 역할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2), 11-27.
 - 11) 박필레 · 김성길(2014).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제안. *미래교육연구*, 4(2), 1-14.
 - 12) 손순복(2016). 영유아 아버지의 아버지역할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197-220.
 - 13) 송혜림 · 박정윤 · 고선강 · 권혜진 · 김유경 · 진미정(2010). 남성대상 가족친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14) 송혜림 · 이정희(2014). 아버지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37-54.
 - 15) 윤성민(2019). 아버지역할 증진을 위한 웹 기반 심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청소년기 자녀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10), 21-51.
 - 16) 양소남(2013). 아버지의 부정경험: 다양한 역할수행의 긴장과 갈등. *디지털정책연구*, 11(2), 375-383.
 - 17) 여성가족부(2018). 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18) 이지연 · 이소현(2020). SNS 기반 아버지 역할 증진 프로그램이 장애 유아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역할 만족도, 아버지-유아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4(4), 51-80.
 - 19) 이현아(2014). 집단면접조사를 통한 아버지 학교참여 사례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2(5), 179-191.
 - 20) 이현아(2018).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현황 및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3), 61-76.
 - 21) 이현아 · 박철 · 김선미(2017).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요구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319-349.
 - 22) 이현아(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143-175.
 - 23) 홍길희 · 황정혜(2006).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7(3), 301-317.
 - 24) 홍길희 · 황정혜(2007). 아버지됨(fathering) 향상을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유아교육 · 보육복지연구*, 11(2), 5-24.
 - 25) 황혜신 · 윤명자(2015).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부모효능감,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자녀 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4, 1-19.
 - 26) 통계청(2020.7.3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 27)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28) Allen, W.P. & Doherty, W. J.(1996). The Responsibilities of Fatherhood as Perceived by African American Teenage Fathers. *Families in Society*, 77(3), 142-155.
 - 29) Bronte-Tinkew, J., Carrano, J., Allen, T., Bowie, L., Mbawa, K. & Matthews, G.(2007). Elements of Promising Practice for Fatherhood Programs: Evidence-Based Research Findings on Programs for Fathers. *National Responsible Fatherhood Clearinghouse*,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30) Bronte-Tinkew, J., Burkhauser, M. & Metz, A.(2012). Elements of promising practices in fatherhood programs: Evidence-based research findings on interventions for fathers. *Fathering*, 10(1), 6-30.
 - 31) Crompton, R.(2001). Gender restructuring, employment, and caring. *Social Politics*, 8(3), 266-291.
 - 32) Fagan, J. & Kaufman, R.(2015). Reflections on theory and outcome measures for fatherhood program. *Families in Society*, 96(2), 133-140.
 - 33) Holmes, E., Galovan, A., Yoshida, K. & Hawkins, A. (2010). Meta-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 fathering programs: Are family life educators interested in fathers? *Family Relations*, 59, 240-252.
 - 34) Barnow, Burt S., Stapleton, David C. &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DHHS), Washington, DC. & Lewin Group, Inc., Washington, DC. & Johns Hopkins Univ., Baltimore, MD.(1997). An Evaluability Assessment of Responsible Fatherhood Programs. Final Report. [Washington, D.C.] : Distributed by ERIC Clearinghouse.
 - 35) Martinson, K. & Nightingale, D.(2008). Ten key findings from responsible fatherhood initiative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36) McBride, B. A. & McBride, R. J.(1993). Parent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fathers: Research guiding practice. *Childhood Education*, 70, 4-9.
 - 37) National Center on Fathers and Families(2002). The Fathering Indicators Framework: A Tool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Philadelphia, PA.
 - 38) Stoltz, H. E., Barber, B. K. & Olsen, J. A. (2005). Toward disentangling fathering and mothering: An assessment of

- relative impor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1076- 1092.
- 39)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8). Office of Family Assistance Healthy Marriage and promoting responsible fatherhood Initiatives.
- 4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10). Office of Family Assistance Evaluation Resource Guide for Responsible Fatherhood Programs.

- 투 고 일 : 2021년 12월 26일
- 심 사 일 : 2022년 01월 14일
- 계 재 확정 일 : 2022년 01월 25일